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핫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

노세영*

1. 들어가는 말

레위기를 번역함에 있어서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타난다. 때로 이런 용어들은 전통적으로 번역된 것을 단순히 사용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전무용은 성서 안에 나타나는 중국어 차용어가 적지 않게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우리말 번역 성경들 중에서 사용되는 제의적 용어들은 여전히 중국어 차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없는 듯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비단 중국어 차용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그 용어들의 본뜻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런 신학적이며 제의적 용어들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소고에서는 지면상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번역상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다. 다만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제도 및 그 신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의적 용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תָּטַף (핫타트 — 레 4:3, 14, 20, 21 등)

‘תָּטַף’는 ‘죄를 짓다’ 혹은 ‘잘못을 범하다’ 등의 뜻을 가진 Qal형 ‘טָפַף’

* Drew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교수. syroh@stu.ac.kr. 이 논문은 서울신학대학교 2014학년도 연구년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비평』 51 (2013), 68.

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기본적으로 ‘죄’ 혹은 ‘반역, 거역’ 등을 의미한다(출 32:30-32; 레 16:16).²⁾ ‘חַטָּאת’은 초기에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하였지만 나중에는 개인적인 책임감과 관련된 범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³⁾ 그렇지만 에스겔 40-48장과 레위기를 비롯한 제사와 관련된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죄’로 번역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속죄제물(sin offering)’로 번역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חַטָּאת’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죄’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의 의미이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해 왔다. 이 소고에서는 ‘죄’를 의미하는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חַטָּאת’을 제사와 관련하여⁴⁾ 번역할 때 과연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חַטָּאת’을 전통적으로 ‘속죄제’로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חַטָּאת’이 ‘חַטָּא’에서 파생되어 그 의미가 ‘죄’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חַטָּאת’ 제사에 대한 규례인 레위기 4장 1절-5장 13절에서 ‘חַטָּאת’ 제사의 목적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용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레 4:20, 26, 31, 35, 등).⁵⁾ 둘째 이유는 레위기 4장 1절-5장 13절에서 각각의 ‘חַטָּאת’ 제사는 그 기능을 표현하는(주로 ‘속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כַּפֵּר’와 함께 쓰이기 때문이다.⁶⁾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로 인하여 대부분의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속죄제’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 등에서는 ‘속죄제물’ 혹은 ‘속죄제’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공동번역』과 그 개정판에서는 대체로 다른 번역 성경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부 구절에서 ‘속죄제’ 혹은 ‘속죄제물’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단순히 ‘죄를 벗겨주는 제사’ 등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레 4:3, 21 등). 또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sin offering’으로 번역되고 있다(NRSV, NJPS, NKJV, NASB, NEB 등). 특히 우리말 성경에서 ‘속죄

2) ‘하타’와 ‘하타트’의 의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보라: Nobuyoshi Kiuchi, *A Study of Ḥāṭā’ and Ḥaṭṭā’ in Leviticus 4-5*,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 (Tübingen: Mohr Siebeck, 2003).

3) K. Koch, “chata, חַטָּאת”,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이하 TDOT) 4 (Grand Rapids: Eerdmans, 1980), 312.

4) ‘חַטָּאת’이라는 말에는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 혹은 ‘제물’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5) K. Koch, “chata, חַטָּאת”, 316.

6) N. Kiuc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JSOTSupp 56 (Sheffield: JSOT Press, 1987), 11.

제'라고 번역하는 데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하여 영어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가 20세기 초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당시 지식인들을 위하여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תָּאָחַת'를 한자어인 '속죄제'로 번역함으로써 교회에서는 '속죄(贖罪)'를 한자어의 의미에 따라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⁸⁾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속죄제(贖罪祭)'를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과연 'תָּאָחַת'를 '속죄제'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תָּאָחַת' 제사의 기능을 표현하는 'כָּפַר'를 '속죄하다'로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레위기 4장 1절-5장 13절에 나오는 'תָּאָחַת' 제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일까? 레위기를 비롯하여 다른 본문에 나오는 'תָּאָחַת' 제사는 어떤 목적으로 드러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모랄디(L. Moraldi)는 '속죄하다'라는 법적인 용어는 'תָּאָחַת' 제사의 기능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민 19:9, 17; 31:23).⁹⁾ 제임스 바(James Barr)도 그의 논문에서 'תָּאָחַת' 제사는 실제적으로 죄와 관련이 없고 피엘형인 'אָחַת'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다' 혹은 '깨끗하게 하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속죄제'라는 용어 보다는 '정결제물/제사(purification offering)'¹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¹¹⁾ 그 후 밀그롬(J. Milgrom)도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תָּאָחַת'는 적어도 제의적 상황에서 '죄'의 개념과 관련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sin offering)'라는 번역보다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정화제물/제사(purification offering)'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תָּאָחַת' 제사의 대상은 죄와는 상관없이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점이다. 곧 'תָּאָחַת'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산모에 대한 규례(레 12), 나실인으로서 구별한 날이 다 끝난 후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민 6), 처음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레 8:15)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죄'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תָּאָחַת' 제사를 드린다는 점이다. 둘째로 문법적인 면에

7)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65.

8) 東亞出版社 漢韓大辭典 辭書部, 『漢韓大辭典』(서울: 東亞出版社, 1963), 1352.

9) L. Moraldi, *Espiazione sacrificale e riti espiatori nell'ambiente biblico e nell'Antico Testament* (Rom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56), 154; N. Kiuc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13에서 재인용.

10) 우리말 번역에서 제사 혹은 제물로 제안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 제사 혹은 제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James Barr, "Sacrifice and Offering", F. C. Grant and H. Rowley, 2nd eds.,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3), 874.

서 ‘טָטַח’의 동사형은 “죄를 행하다”, “죄를 짓다”의 의미를 가진 단순능동형의 칼(Qal)형인 ‘טָטַח’에서 온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 오염을 제거하다’의 의미를 가진 강세형 피엘(Piel)형인 ‘טָטַח’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로 번역하는 것은 언어학적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예, 레 8:15; 겔 43:22, 26; 시 51:9 등). 셋째로 민수기 8장 7절에 따르면 “속죄(טָטַח)의 물”은 죄를 제거하는 기능이 아닌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위의 학자들의 주장은 ‘טָטַח’를 속죄제로 번역한 것이 ‘טָטַח’ 제사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טָטַח’ 제사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다. 그 이후 웬함(Gordon J. Wenham)과 하틀리(John E. Hartley)와 같은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석에서 밀그롬의 이러한 견해를 따라 ‘정화제물/제사 (purification offering)’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하였다.¹³⁾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통하여 ‘טָטַח’ 제사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닌 부정한 상태와 관련되어 드리는 제사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정화제물/제사’라는 번역이 ‘טָטַח’ 제사의 기능과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일까? 이를 위하여 두 가지를 간략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טָטַח’ 제사의 기능과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טָטַח’ 제사의 본문에서 항상 등장하는 ‘כִּפָּ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다. 첫째 질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 밀그롬의 견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그롬은 기본적으로 ‘טָטַח’ 제사의 기능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곧 사람의 죄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טָטַח’ 제물의 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뿌려지는 일이 없으며 다만 어떤 장소나 물건에게만 뿌려진다는 점에 근거한다.¹⁴⁾ 이러한 근거 위에서 밀그롬은 ‘טָטַח’ 제사가 죄를 제거하는, 즉 속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아래의 두 학자에 대하여 비평한다. 하나는 레위기 10:17에서 말한 ‘שָׂרֵף אֶת-עֹנֵן’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טָטַח’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카우프만(Yehezkel Kaufmann)의 견해이다.¹⁵⁾ 밀그

12) J. Milgrom, “Sin-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etus Testamentum* (이하 VT) (1971), 237; J.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253.

13) ‘טָטַח’ 제사에 대한 번역과 그 기능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는 다음의 글을 보라: N. Kiuc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11-16.

14) J. Milgrom, “Atonement in the OT”,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이하 IDB) *Supplementary volume* (Nashville: Abingdon, 1976), 78-79; J. Milgrom, “kipper”, *Encyclopedia Judaica* 10 (1971), 1039.

롬에 의하면 레위기 10:17의 문구는 ‘죄를 제거하다’가 아니라 다른 본문(출 28:43; 레 5:1, 17; 17:16; 민 18:1, 22; 30:16)과 비교하여 볼 때 ‘책임을 지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또 다른 견해는 제사장이 바친 ‘תאֲחֶזֶק’ 제물은 “오염으로부터 성소와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직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일반 백성들이 바쳐서 제사장이 먹는 ‘תאֲחֶזֶק’ 제물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범한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레빈(B. A. Levine)의 견해이다.¹⁷⁾ 밀그롬은 속죄일에 드리는 숫염소나 레위기 4:13-21에서 수송아지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의하여 바쳐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תאֲחֶזֶק’ 제물을 바치는 주체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을 비평한다. 그는 제사장이 먹는 ‘תאֲחֶזֶק’ 제물이 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죄와는 관련이 없는 부정(레 12장의 산모의 경우) 때문에 드러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תאֲחֶזֶק’ 제물과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의 의식을 행하는 ‘תאֲחֶזֶק’ 제물로 구별해야 하며 이 두 종류의 ‘תאֲחֶזֶק’ 제물은 모두 성막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밀그롬의 견해로부터 ‘תאֲחֶזֶק’ 제사가 성막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점은 분명하더라도 그의 견해 또한 ‘תאֲחֶזֶק’의 기능을 전부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과연 레위기 10:17의 ‘תאֲחֶזֶק אֲשַׁן’을 ‘책임’을 지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적어도 구약에서 ‘תאֲחֶזֶק’은 ‘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책임’을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⁸⁾ 또한 밀그롬이 말한 것처럼 ‘תאֲחֶזֶק’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번제단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번제단에서만 사용하는 ‘תאֲחֶזֶק’ 제물의 고기를 먹는 행위가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תאֲחֶזֶק’ 제사가 제의적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에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위기 4:22-5:13에서 백성의 지도자나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תאֲחֶזֶק’ 제사는 단순한 제의적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죄(תאֲחֶזֶק)를 말하고 있다(레 4:22-23, 27-28; 5:1, 4). 또한 이 경우에 ‘תאֲחֶזֶק’ 제사를 드린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는 점(레 4:31, 35; 5:10, 13)은 죄의 용서 혹은 죄의 제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드리는 살아있는 ‘תאֲחֶזֶק’

15) Y. Kaufmann, *Tôl'dôt hâ "mûnâ hayyisr'êlît I* (Dvir: Tel-Aviv, 1938), 568-569; J. Milgrom, "Two Kinds of תאֲחֶזֶק", *VT* 26 (1976), 333에서 재인용.

16) J. Milgrom, "Two Kinds of תאֲחֶזֶק", 333.

17) B.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Leiden: E. J. Brill, 1974), 103-104.

18) N. Kiuc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50.

제물의 경우에는 죄를 전가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점은 ‘חֲטָאת’ 제사가 단순히 성막을 정결하는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חֲטָאת’ 제사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חֲטָאת’ 제사의 기능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논의는 ‘חֲטָאת’ 제사를 다루는 본문에서 항상 나타나는 ‘כִּפָּר’의 의미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כִּפָּר’가 ‘חֲטָאת’ 제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כִּפָּר’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¹⁹⁾ 여기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밀그롬의 견해를 비평함으로써 ‘חֲטָאת’ 제사의 상황에서 ‘כִּפָּר’의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밀그롬은 기본적으로 ‘חֲטָאת’ 제물의 피는 성소나 그에 따른 부속물에만 뿌려질 뿐 사람에게에는 뿌려지지 않는다는 점과 ‘כִּפָּר’는 오직 장소나 물체만을 그 직접목적어로 갖는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²⁰⁾ 따라서 ‘כִּפָּר’는 피의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피의 의식은 ‘כִּפָּר’ 의식의 목적과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כִּפָּר’의 간접목적어가 되는 것은 성소를 정화함으로써 사람이 그 수혜를 입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²¹⁾ 이런 점에서 속죄일에 죽이는 ‘חֲטָאת’ 제물은 성소를 정화하기 위함이라면 살아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사람의 죄를 깨끗케 하기 위함이라고 여긴다.²²⁾ 이러한 밀그롬의 견해는 ‘כִּפָּר’를 피의 의식에 제한시키는 약점을 갖게 된다. 한편 키우치(Nobuyoshi Kiuchi)는 ‘כִּפָּר’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חָטָא, טָהַר, וְסָלַח)이 ‘כִּפָּר’의 의미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면서 ‘כִּפָּר’는 단순히 피의 의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죄를 담당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²³⁾ 아마도 키우치의 견해는 정당하다고 보인다.²⁴⁾ 이러한 이해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에서도 발견된다. 적어도 레위기에 있어서 거룩은 일반적인 것의 반대 개념이며 일반적인 것은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다(레 10:10). 이렇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19) ‘חֲטָאת’ 제사에 나타나는 ‘כִּפָּר’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을 보라: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 (2005), 31-52.

20) J. Milgrom, “Atonement in the OT”, 78-9; J. Milgrom, “kipper”, 1039.

21) J. Milgrom, “kipper”, 1039-1040.

22) J. Milgrom, “Day of Atonement as Annual Day of Purgation in Temple Times”, *Encyclopedia Judaica* 5 (1971), 1384.

23) N. Kiuc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19.

24)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31-52.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תאֲחֻזָּה’ 제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윤리적인 죄로부터의 용서(레 4:1-5:13), 제의적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레 12장), 사람의 윤리적인 죄와 제의적 부정으로 인한 지성소, 성소, 번제단의 부정함으로부터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기능(레 16:16-19) 등을 모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레 16:33). 결과적으로 ‘תאֲחֻזָּה’ 제사를 드리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결을 넘어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레 11:44-45; 19:2). 레위기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감한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תאֲחֻזָּה’ 제사가 드려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תאֲחֻזָּה’ 제사가 거룩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제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거룩이란 ‘תאֲחֻזָּה’ 제사를 통하여 윤리적인 죄로 인한 부정이나 제의적인 부정에서부터 정결해지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룩한 상태로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히려 죄를 용서하는 것, 정결(purification), 거룩(sanctific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에 이런 견해가 옳다면 전통적인 견해처럼 ‘תאֲחֻזָּה’를 ‘속죄제’로 이해한다거나 좀 더 나은 견해이기는 하지만 ‘정화제물/제사(purification offering)’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 기능을 보다 축소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תאֲחֻזָּה’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인 사람과 성막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성화제물/제사(sanctification offering)’²⁵⁾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מִשְׁכָּה (아삼 — 레 5:15, 16, 18, 19 등)

‘מִשְׁכָּה’는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새번역)에서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속건제사/제물’로, 『공동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면죄제물/제사’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5년도에 출판된 『성경』에서는 ‘보상제물’로, 많은 영어 성경(NRSV,

25) 위의 각주 10)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문맥에 따라 제사 전체를 의미하는 성화제사 혹은 제물로 제한하여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함께 표현하였다. 또한 이런 표현은 아삼(배상제물/제사)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하였다.

NJPS, NASV, NEB 등)에서는 ‘guilt offering’으로, KJV와 NKJ에서는 ‘trespass offering’으로 번역되어 있다. ‘속건제(贖愆祭)’에서 ‘건(愆)’이나 영어의 ‘guilt’ 혹은 ‘trespass’는 모두 일반적으로 허물, 죄 등을 의미한다. 어쨌든 ‘ אָשָׁם ’을 ‘면죄제물’로 번역한 『공동번역』 및 『공동개정』과 ‘보상제물’로 번역한 천주교중앙협의회회의의 『성경』을 제외하고 위에서 소개된 성경에서 ‘ אָשָׁם ’이 속건제 혹은 guilt offering으로 번역되는 데는 ‘ אָשָׁם ’이 명사로 사용될 때 그 기본적 의미가 영어의 guilt, trespass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사에서는 ‘죄를 짓다’ 혹은 ‘잘못을 저지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26)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 אָשָׁם ’을 언어의 기본적 의미에 근거하여 속건제로 번역한다면 사실상 ‘ תָּאָשַׁם ’ 제사와 ‘ אָשָׁם ’ 제사의 차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중국어인 속죄제(贖罪祭)와 속건제(贖愆祭)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 전무용은 그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에서 속죄제(贖罪祭)에서 표현하는 ‘죄(罪)’는 일반적 의미의 죄에 가깝고 속건제(贖愆祭)에서의 ‘건(愆)’은 실수에 가깝다고 이해한다. 우리말 번역에서 중국어의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 속건제는 부지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어의 개념으로서만 이를 이해한다면 ‘ אָשָׁם ’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 תָּאָשַׁם ’를 실수가 아닌 죄를 위한 제사로, ‘ אָשָׁם ’ 제사가 단순히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참조, 레 4:13, 22; 6:2-5 등). 크니림(R. Knierim)은 구약에서 ‘ אָשָׁם ’의 용법은 언어학적으로 단순히 ‘죄’를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감정과 같은 ‘culpability, guilt(유죄, 죄책감), responsibility(책임감)’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⁷⁾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동사로서의 ‘ אָשָׁם ’의 의미가 ‘죄책감을 갖다’ 혹은 ‘유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켈러만(D. Kellermann)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다섯 번의 ‘ אָשָׁם ’ 동사를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유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⁸⁾ 다시 말해서, ‘ אָשָׁם ’의 기본적 의미는 단순히 ‘죄’ 자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아직은 벌을 받지

26) Francis Brwo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Oxford: Clarendon Press, 1951) (이하 BDB), 79.

27) R. Knierim, “ אָשָׁם 'āshām Schuldverpflichtun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253.

28) D. Kellermann, “ אָשָׁם 'āshām”, *TDOT* 1 (Grand Rapids: Eerdmans, 1974), 435-436.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²⁹⁾ 이런 점에서 영어 성경들은 ‘ אָשָׁם ’을 번역할 때는 주로 ‘guilt offering’으로 번역하지만 동사를 번역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유죄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다”이다. 따라서 RSV 성경에서는 주로 “...유죄이다”라고 번역하여 법정에서 유죄임을 선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면 밀그롬은 “죄책감을 느끼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 등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³⁰⁾ 따라서 동사 ‘ אָשָׁם ’의 의미와 관련하여 볼 때 명사 ‘ אָשָׁם ’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유죄임을 선포하게 하는 제물 혹은 제사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를 느끼게 하는 제물 혹은 제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틀리는 히브리 사상에서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개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³¹⁾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죄책감이나 유죄로의 인정 등은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기 위해 다음 행동을 하도록 깨닫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³²⁾ 동시에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시편 34:21에서 ‘ אָשָׁם ’을 ‘형벌을 받다’로 번역해야 한다거나 잠언 30:10의 경우에는 켈러만의 견해를 따라³³⁾ 죽음과 같은 무거운 형벌까지도 받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⁴⁾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상이라는 포괄적 이해에 근거하여 하틀리는 명사 ‘ אָשָׁם ’은 ‘죄책감, 배상, 배상제물’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곧 ‘ אָשָׁם ’은 크니림의 견해를³⁵⁾ 따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의무감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하틀리의 견해는 ‘ אָשָׁם ’이 단순히 죄책감이나 유죄임을 알게 되는 어떤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אָשָׁם ’을 책임감이나 배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죄, 죄책감은 형벌 혹

29)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s Books, 1992), 76.

30) Jacob Milgrom,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the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Leiden: E. J. Brill, 1976), 7-12.

31) John E. Hartley, *Leviticus*, 77.

32) Ibid.

33) D. Kellermann, “ אָשָׁם 'āshām”, 436.

34) John E. Hartley, *Leviticus*, 77.

35) R. Knierim, “ אָשָׁם 'āshām Schuldverpflichtung”, 254.

은 배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출발하고 있는 점은 그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추상적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소개된 언어학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םִשָּׁן’의 의미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םִשָּׁן’의 기능과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못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תִּשְׁבֹּ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םִשָּׁן’ 제사의 기능과 목적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 보다 최근 학자들의 견해가 전통적인 번역보다는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םִשָּׁן’ 제사의 최종 목적은 모두 ‘כִּפָּר’ 의식을 통한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에 나오는 ‘םִשָּׁן’ 제사의 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 속죄한즉 ...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문구가 나오는데(레 5:16, 18; 6:7), 이는 ‘תִּשְׁבֹּעַ’ 제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에 나오는 ‘םִשָּׁן’ 제사의 규례에는 제사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תִּשְׁבֹּעַ’ 제사의 경우(4:1-5:13)와는 달리 그 절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레위기 7장 1-6절에서 그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7장 7절에서는 두 제사의 규례가 동일하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제로 ‘םִשָּׁן’ 제사와 ‘תִּשְׁבֹּעַ’ 제사의 기능과 목적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은 두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다. 이 소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지만³⁶⁾ 다만 ‘םִשָּׁן’ 제사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런 점에서 ‘םִשָּׁן’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תִּשְׁבֹּעַ’ 제사와 구별하기에 더 적절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곧 ‘םִשָּׁן’에 대한 번역을 다룸에 있어서 ‘תִּשְׁבֹּעַ’ 제사의 경우처럼 언어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기능과 목적을 다루게 될 때 두 제사/제물 사이의 번역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제사가 갖는 주요한 특징을 통하여 ‘םִשָּׁן’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를 제안하고자 함이다.

첫째로 ‘תִּשְׁבֹּעַ’ 제사와는 다른 ‘םִשָּׁן’ 제사의 특징은 ‘םִשָּׁן’ 제사를 드리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는 70인역을 기초로 ‘תִּשְׁבֹּעַ’ 제사는 사람에게 대한 비의도적 죄를 위한 제사라면 ‘םִשָּׁן’ 제사는 성물에 대한 비의도적 죄와 사람에게 대한 의도적인 죄를 위한 제사라고 구별하였다.³⁷⁾ 이와 관련하여 밀그롬도 ‘םִשָּׁן’ 제사는 비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1-7절에 나오는 거짓 맹세와 같은

36) 이 두 제사의 차이점에 대한 것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Baruch A. Levin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91-112; D. Kellermann, “םִשָּׁן 'āshām”, 429-39; John E. Hartley, *Leviticus*, 76-78.

37) D. Kellermann, “םִשָּׁן 'āshām”, 431.

의도적인 죄와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희생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1) 죄에 대한 비의도성; 2) 양심의 가책; 3) 잘못을 고치기 위한 배상제물. 따라서 의도적인 죄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זָכַר ’ 제사에서 의도적인 죄가 나오는 것은 ‘ זָכַר ’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의도적인 죄에서 비의도적인 죄로 변화시켜 죄의 용서에 이르게 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³⁸⁾ 그렇지만 회개가 의도적인 죄에서 비의도적인 죄로 변화시킨다는 전제³⁹⁾는 구약의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수기 15장 32-36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 어떤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사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구약에서 비의도적인 죄라는 의미를 현대 언어적인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의도적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 זָכַר ’ 제사라는 특징 또한 매우 추상적이다.

따라서 ‘ זָכַר ’ 제사를 드리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זָכַר ’ 제사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 לַעֲוֹן ’이란 용어로 표현된다. ‘ לַעֲוֹן ’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죄를 의미한다.⁴⁰⁾ 이 단어는 ‘ זָכַר ’ 제사의 문맥(레 5:14-6:7)에서 두 번 나타나는데, 이는 두 개의 잘못된 행위와 동일시된다. 하나는 성물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며(레 5:15) 또 다른 경우는 거짓 맹세한 경우이다(레 6:2). 레위기 5장 15a절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여(לַעֲוֹן לַעֲוֹת) 부지중에 야웨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앞에 나오는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여...”라는 표현이 빠져 잘못 번역되어 있다. 성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나 장소를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곧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을 평민들이 먹는 다거나 혹은 거룩한 상태에서만 먹어야 하는 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레 6:18 등). 또한 레위기 6장 2a절에서는 ‘ לַעֲוֹן ’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를 직역하면 “누구든지 범죄하되 야웨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하여(לַעֲוֹן לַעֲוֹת) ...”이다. 여기에서의 야웨를 거슬러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죄는 구체적으로 세

38) J. Milgrom, *Levitic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4), 51.

39) J. Milgrom,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Revue Biblique* 82 (1975), 55-57.

40) J. Milgrom, *Cult and Conscience*, 16-17.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거짓이나 속이는 행위로 남의 물건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이나 착취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이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제 3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למַעַן’의 행위이다.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사용하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웃의 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מִשְׁפָּ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잘못된 소유권을 갖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מִשְׁפָּט’ 제사의 둘째 특징은 잘못된 소유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תַּשְׁבֵּחַ’ 제사의 목적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의 단계를 거쳐 거룩하게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מִשְׁפָּט’ 제사에서는 잘못된 소유에 대한 배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배상은 문제가 된 물건의 20%이다(레 5:16; 6:5). 민수기 5장 5-7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련하여 죄를 지으면 그 값에 20%를 더하여 갚아야 하며 만약에 원주인이 없으면 그의 친척에게라도 갚아야 하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상에 더하여 ‘מִשְׁפָּט’ 제사도 드려야 한다(레 6:6). 그 후에야 죄인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מִשְׁפָּ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는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배상이 함께 따르게 된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런 특징은 적어도 ‘תַּשְׁבֵּחַ’ 제사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볼 때 ‘מִשְׁפָּט’ 제사를 단순히 ‘속죄제’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도 그 구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면제제물’ 혹은 ‘면제제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성물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면제로 이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מִשְׁפָּט’ 제사가 단순한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מִשְׁפָּט’ 제사의 두 가지 특징에 근거하여 볼 때 ‘למַעַן’, 즉 하나님을 거슬러 신실하지 못한 죄의 행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자복해야 하며(민 5:7) 아울러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는 ‘מִשְׁפָּ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틀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מִשְׁפָּט’은 하나님을 거슬러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출판된 『성경』에서 ‘보상제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곧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는 죄의 자복에서 그치지 않고 책임으로서의 배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이런 이해가 옳다면 ‘אָשָׁם’을 ‘배상제물/제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4. תְּרוּמָה 및 תְּנוּפָה (트루마 및 트누파 — 레 7:14, 30 등)

전통적으로 ‘תְּרוּמָה’는 ‘거제(擧祭, 올려드리는 제물)’로, ‘תְּנוּפָה’는 ‘요제(搖祭,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번역되어 왔는데 이 두 단어 또한 중국어로 부터 차용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두 단어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의적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단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번역이 정당한 것일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뱅상(A. Vincent)은 ‘תְּנוּפָה’는 하나님과 (혹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한 예물이고 ‘תְּרוּמָה’는 원래 세속적인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제안하였다면⁴¹⁾ 드라이버(G. R. Driver)는 이 둘 사이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²⁾ 이 두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번역을 위해 레위기 7장 14절에 나오는 ‘תְּרוּמָה’에 대한 번역과 7장 30절에 나오는 ‘תְּנוּפָה’를 여러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7장 14절에 나오는 ‘תְּרוּמָה’를 우리말 성경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거제로 드리고(개역개정)”; “높이 들어 바쳐야 한다(표준새번역)”; “높이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새번역)”; “들어 바치고(공동개정)”. 우리말 번역에서는 제시된 모든 번역이 모두 다 ‘거제(擧祭)’, 즉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물 혹은 제의적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heave offering”(KJV/NKJ); “contribution”(NAS, NAB, NEB, NIV); “a gift”(NRS, NJPS); “an offering”(RSV, NJB). 위에서 제시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말 성경들과는 달리 KJV/NKJ 만이 “heave offering”, 즉 ‘들어올리는 제물’이란 의미로 번역하고 있고 나머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a gift’, ‘an

41) A. Vincent, *Mélanges Syriens offerts à R. Dussaud I* (Paris: Geuthner, 1939), 267-272;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126에서 재인용.

42) G. R. Driver, “Three Technical Term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1 (1956), 100-105.

offering’, 혹은 ‘a contribution’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들은 ‘선물’, ‘헌물’, ‘예물’, ‘제물’, ‘조세/분담금’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번역들에 의하면 ‘תְּרוּמָה’가 제의적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70인역에서는 ‘아파이레마(ἀφάιρεμα)’, 즉 조세 혹은 어떤 것으로부터 선택되어 분리된 것으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과연 ‘תְּרוּמָה’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전통적으로 ‘תְּרוּמָה’를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데는 아마도 언어학적으로 ‘תְּרוּמָה’를 ‘들어올리다’ 혹은 ‘올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רום’의 히필형의 파생어로 간주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⁴³⁾ 그러나 ‘רום’의 히필형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 외에도 ‘…로부터 제거하다’, ‘…을 가지고 가다’, 혹은 ‘…을 분리하여 두다’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뜻과 대응하는 ‘תְּרוּמָה’의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세’, ‘분담금’ 혹은 ‘헌물’ 등으로 이해된다.⁴⁴⁾ 이런 여러 의미 중에서 제의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를 알기 위해서 ‘תְּרוּמָה’가 사용된 여러 경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성서에서 ‘תְּרוּמָה’는 76번 나타나는데⁴⁵⁾ 그 중 몇 가지 경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사를 지내는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출애굽기 25장 2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 “여호와께 예물(תְּרוּמָה)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부분은 제의적 상황이 아닐 뿐더러 성막을 짓기 위해 여호와께 드린 헌물로서 그것은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성막을 짓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드리는 조세 혹은 분담금의 성격을 지닌다(출 35:5 참조). 출애굽기 30장 13절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반 세겔의 헌금(תְּרוּמָ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이다. 이는 분명하게 성전세의 성격을 지닌다(마 17:24-27 참조). 이 구절에 관하여는 우리말 성경을 포함하여 어떤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도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지 않는다. 민수기 5장 9절에서도 ‘תְּרוּמָה’가 어떤 제의적 행위와 함께 드려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성물 중에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הִקְרִיב) ‘תְּרוּמָה’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이며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 L. Wächter, “תְּרוּמָה, t’rûmâ”, *TDOT* 15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6), 770-771.

44) L. Wächter, “teruma”, 771.

45) Ibid.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헌물이다. 민수기 15장 19-21절에서도 ‘תְּרוּמָה’는 올려드리는 제의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תְּרוּמָה’로 드리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어떤 제의적 행동은 표시되지 않는다. 19-20절에서 ‘תְּרוּמָה’는 ‘רוּם’의 히필동사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형인 תְּרִימוּ를 갖는다. ‘רוּם’의 히필형은 기본적으로 ‘높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 전치사와 함께 “...에게 드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다.⁴⁶⁾ 특히 NJPS에서는 이 단어를 “...로부터 구별하여 두다(set aside)”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의미에 근거하면 “너희들이 그 땅의 빵을 먹을 때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תְּרוּמָה)로 드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수기 20장 26절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תְּרוּמָה’라고 부른다. 곧 제사장들의 소득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이다.

다른 한편 제의적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로서 출애굽기 29장 27절은 화목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תְּרוּמָה’에 대한 본문으로 ‘תְּרוּמָה’에 사용된 동사는 ‘רוּם’의 호팔형 ‘הוּרָם’으로 전치사 ‘מִן’과 함께 사용되어 “...로부터 이끌어내진”이다.⁴⁷⁾ 이런 점에서 볼 때 27절에 나오는 ‘תְּרוּמָה’는 “위임식 숫양으로부터 이끌어내진/선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번역된 것처럼 ‘תְּרוּמָה’가 ‘거제’ 혹은 ‘올려드리는 제물’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레위기 7장 14절에서는 ‘תְּרוּמָה’에 사용된 동사는 ‘הִקְרִיב’로 이는 ‘קָרַב’의 히필형으로 그 뜻은 ‘드리다’ 혹은 ‘가지고 오다’이다. 따라서 14a절을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각각의 예물(코르반)로부터 하나씩 여호와께 ‘תְּרוּמָה’로 드려야 한다(הִקְרִיב)…”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단순히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이며 ‘תְּרוּמָה’를 올려드리는 제의적 행위로 이해할 만한 근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은 레위기 7장 28-34절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진 ‘הַתְּרוּמָה’와 ‘תְּנוּפָה’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기름과 가슴은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기름은 태우고 가슴은 ‘תְּנוּפָה’로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תְּרוּמָה’의 경우에는 어떤 제의적 행위를 표현하지 않으며 다만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תְּרוּמָה’로서 제사장에게 주라(נתן)고 서술한다. ‘תְּנוּפָה’의 경우와는 달리 ‘תְּרוּמָה’로서의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떤 제의적 행동에 대한 표현이 없이

46) BDB, 926.

47) Ibid.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תְּרוּמָה’가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위의 본문들을 통하여 볼 때 ‘תְּרוּמָה’는 제의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제의적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거제’ 혹은 ‘올려드리는 제물’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조세’ ‘예물’ 혹은 ‘분담금’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⁴⁸⁾ 특히 밀그룹은 ‘תְּרוּמָה’가 항상 ‘לִיתְּנָה’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제의적이거나 혹은 성소와 관련하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이 견해는 위에서 살펴본 본문들에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תְּרוּמָה’는 단순히 ‘거제’ 혹은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비제의적 상황에는 물론이고 제의적 상황에서도 경우에 따라 ‘선물’, ‘예물’, ‘조세’, ‘분담금’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⁵⁰⁾ 곧, 제사장의 소득을 위한 백성들의 세금과 같은 형태이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תְּרוּמָה’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보아야 한다.⁵¹⁾

한편 ‘תְּנוּפָה’는 일반적으로 ‘요제’, 즉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번역된다. 레위기 7장 30절을 현대어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말 번역 성경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개역개정);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표준새번역);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새번역); “...갈비도 가져다가 흔들어 야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공동개정). 제시된 모든 우리말 번역에서는 ‘תְּנוּפָה’를 모두 ‘요제’ 혹은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번역함으로써 ‘תְּנוּפָה’가 흔드는 제의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다: “wave offering”(KJV, NAB, NAS, RSV); “the gesture of offering”(NJB)”; “elevation offering”(NRS;

48) Wächter, “teruma”, *TDOT* 15, 771-772.

49) Jacob Milgrom, *Leviticus 1-16*, 462.

50) L. Koehler, W. Baumgartner, et al.,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T 2* (Leiden: E. J. Brill, 2001), 1789-1790을 참조하라.

51) ‘תְּרוּמָ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J. Milgrom, “Akkadian Confirm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teruma”, *Tarbiz* 44 (1974-1975), 189; J. Milgrom, “The soq hatternuma”, *Tarbiz* 42 (1972), 1-14; H.-P. Stahli, “rum to be high”,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heological Lexicon of the OT 3*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1220-1225.

JPS); “special gift”(NEB). 위의 영어 번역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오래된 번역 성경들은 대체로 ‘תְּנוּפָה’를 흔들어 드리는 제의적 행위로 이해하여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NRS(1989)와 JPS(1985)에서는 오히려 ‘거제’, 즉 ‘올려드리는 제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NJB에서는 예물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애매한 번역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תְּנוּפָה’를 ‘요제’ 혹은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라고 한 전통적인 번역과 최근에 제시된 ‘거제’ 혹은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번역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일까? ‘תְּנוּפָה’를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תְּנוּפָה’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 ‘נָנַח’를 ‘흔들다’로 번역하는 것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תְּנוּפָה’는 ‘נָנַח’의 히필형인 ‘נָנַחַת’과 함께 사용되는데 ‘נָנַחַת’의 기본적인 의미는 ‘흔들다’이지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제의적 문맥에서는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진 뿔을 높이 들어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되돌려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한다.⁵²⁾ 이런 이해에 근거해 볼 때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제의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밀그롬은 구약 본문에서 ‘תְּנוּפָה’가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가 다시 되돌려 가져가는 행위”라는 고대 랍비들의 해석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תְּנוּפָה’와 함께 쓰이는 동사 ‘נָנַחַת’이 ‘흔들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높이다, 들어올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תְּנוּפָה’는 ‘올려드리는 제의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밀그롬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נָנַחַת’이 단순히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들어올리는 행위임을 이사야서의 본문[사 10:15-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들러한다(נָנַחַת); 사 11:15-유브라테 강 위에 손을 들어(נָנַחַת); 사 13:2-손을 들어라(נָנַחַת)]을 들어 증명하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따르면 제단을 돌로 쌓을 때에 기구를 갖고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는 명령에서 ‘נָנַחַת’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너의 기구를 그 위에 들면(נָנַחַת) 너는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신 27:5 참조).⁵³⁾ 레빈도 ‘תְּנוּפָה’는 동사 ‘נָנַחַת’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들어올리다’ 혹은 ‘높이다’ 등의 행위를 갖는 제의적 행위라고 정의한다.⁵⁴⁾

‘תְּנוּפָה’가 비제의적 상황에서 사용된 경우도 ‘תְּנוּפָה’가 단순히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들어올리는 행위와 관련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사야 19장 16

52) BDB, 631. 히필, 4를 보라

53) J. Milgrom, *Leviticus 1-16*, 469-470.

54) Baurch A. Levine, *Leviticus*, 46.

절에 따르면, “그(들) 위에 들어올리신(הִנִּיחַ) 만군의 여호와와 손을 들어올리심(‘תְּנוּפָה’)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선포한다. 『개역개정』에서는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으로 인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테누파’와 ‘헤니프’ 모두를 흔드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팔을 들어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은 “강한 손과 편 팔”(신 5:15; 7:19; 26:8)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손을 흔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높이 드신 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밀그롬은 ‘תְּנוּפָה’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혹은 헌물의 행위로서 이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 들어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곧, ‘תְּנוּפָה’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들어올리는 제의적 행위라고 정의한 것이다.⁵⁵⁾ 이는 ‘תְּנוּפָה’가 제의적 상황에서 사용될 때 항상 ‘여호와 앞에서’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תְּרוּמָה’는 주로 ‘여호와께(לַיהוָה)’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반드시 제의적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사용되는 단어라면 ‘תְּנוּפָה’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לְפָנֵי יְהוָה)’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제의적 상황과 관련을 맺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에 근거할 때 ‘תְּרוּמָה’는 본문의 상황에 따라 ‘예물’ ‘조세’ 혹은 ‘분담금’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תְּנוּפָה’는 동사 ‘הִנִּיחַ’와 함께 사용되면서 ‘올려드리는 제물’ 혹은 ‘거제’로 번역해야 한다. 만약에 이 제안이 옳다면 출애굽기 29장 26-28절의 번역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개역개정』에 따르면 “26)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번역에 따르면 무엇이 요제이며 거제물인지를 구별하기에 매우 모호하다. 흔든 요제물이 가슴과 넓적다리를 말하는지 혹은 28절의 거제물이 26-27절의 거제물과 다른 것인지 혹은 같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26-28절을 번역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6)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으로부터 가슴을 취하여 그것을 여호와 앞에(לְפָנֵי יְהוָה) 들어올리는 제물(תְּנוּפָה)로서 들어올릴 것이다(הִנִּיחַ). 그것은 너의 몫이니라. 27) 너는 아론과 그의

55) J. Milgrom, *Leviticus 1-16*, 470.

아들들에게 속한 위임식 숫양으로부터 들어올려진 제물(תְּנוּפָה)로서의 가슴과 드러진 헌물(תְּרוּמָה)로서의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28)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물(תְּרוּמָ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헌물(תְּרוּמָה), 곧 화목제물로부터 야웨께 드리는 헌물(תְּרוּמָה)이 될 것이다.”

5. 나가면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중요한 제의적 용어들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오히려 레위기에 나오는 제의적 의미들을 더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죄제(חַטָּאת)와 속건제(עֲשָׂא)는 이 두 제사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데 실패한다. 또한 요제(תְּנוּפָה)와 거제(תְּרוּמָה)라는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속죄제’는 ‘성화제물/제사’로, ‘속건제’는 ‘배상제물/제사’로, ‘요제’는 ‘거제/올려드리는 제물’로, ‘거제’는 ‘헌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런 번역이 모든 본문에서 항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용어를 하나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도 지나치게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하나의 의미로 보편화할 수 있음도 지나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통하여 지금까지 특히 개신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제의적 용어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핫타트, 속죄제/성화제물, 아삼(속건제/배상제물), 트루마(거제/예물), 트누파(요제/올려드리는 제물).

Haṭṭāṭ, sin offering/purification offering, *’āshām*(Guilt Offering, Reparation Offering), *t’rûmâ*(Heave Offering/Contribution), *t’nûphâ*(Wave Offering/Heave Offering).

<참고문헌>(References)

- 노세영, “죽이는 속죄제물에서 kipper 의미의 연구”, 「구약논단」 19 (2005), 31-52.
- 전무용, “그리스도교 용어와 한자어에서 빌려온 용어,” 「신학지평」 51 (2013), 48-71.
- 東亞出版社 漢韓大辭典 篇纂部, 『漢韓大辭典』, 서울: 東亞出版社, 1982.
- Barr, James, “Sacrifice and Offering”, F. C. Grant and H. Rowley, 2nd ed.,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3, 868-876.
- Driver, G. R., “Three Technical Term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1 (1956), 100-105.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s Books, 1992.
- Koch, K., “chata, חַטָּאת”, *TDOT* 4, Grand Rapids: Eerdmans, 1980, 309-319.
- Kellermann, D., “חַטָּאת ’āshām”, *TDOT* 1, Grand Rapids: Eerdmans, 1974, 429-439.
- Kiuchi, Nobuyoshi, *A Study of Ḥāṭā’ and Ḥaṭṭā’ in Leviticus 4-5*, forschungu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 Tübingen: Mohr Siebeck, 2003.
- Kiuchi, Nobuyoshi,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JSOTSupp 56, Sheffield: JSOT Press, 1987.
- Knierim, Rolf, “חַטָּאת ’āshām Schuldverpflichtun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251-257.
- Levine, Baruch A., *In the Presence of the Lord*, Leiden: E. J. Brill, 1974.
- Levine, Baruch A., *Levitic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Commentar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Milgrom, Jacob, “Day of Atonement as Annual Day of Purgation in Temple Times”, *Encyclopedia Judaica* 5 (1971), 1384-1387.
- Milgrom, Jacob, “Akkadian Confirm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teruma”, *Tarbiz* 44 (1974-1975), 189.
- Milgrom, Jacob, “Atonement in the OT”, *IDBS*, Nashville: Abingdon, 1976, 78-82.
- Milgrom, Jacob, “kipper”, *Encyclopedia Judaica* 10 (1971), 1039-1043.
- Milgrom, Jacob, “Sin-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 (1971), 237-239.
- Milgrom, Jacob, “The soq hatternuma”, *Tarbiz* 42 (1972-1973), 1-14.
- Milgrom, Jacob,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Revue Biblique* 82 (1975), 186-205.
- Milgrom, Jacob, “Two Kinds of ḤAṬṬĀ’T”, *VT* 26 (1976), 333-337.
- Milgrom, Jacob, *Cult and Conscience: The ‘Asham’ and the Priestly Doctrine of Repentance*, Leiden: E. J. Brill, 1976.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Milgrom, Jacob, *Levitic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4.

Stahli, H.-P., “rum to be high”, E. Jenni and C. Westermann, ed., *Theological Lexicon of the OT* 3,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1220-1225.

Wächter, L., “תְּרוּמָה, t^ʿrûmâ”, *TDOT* 15,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6, 770-773.

<Abstract>

A Proposal on Korean Translations of Cultic Terms in the Book of Leviticus

Se Young Roh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o propose better Korean translations of some cultic terms in the Book of Leviticu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cultic terms for understanding the cultic system in the Book of Leviticus. Most Korean versions have used traditional translations for such terms and phrases. However, those translations sometimes prevent us from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texts accurately. Here, several terms have been chosen for discussion.

The first term is **תִּשְׂאֵת** (Lev 4:3, 14, 20, 21, etc). **תִּשְׂאֵת** is usually translated as ‘sin offering.’ But some scholars like J. Milgrom and J. Hartley suggest translating this term as ‘purification offering’ because **תִּשְׂאֵת** is not related to **אָשָׁת** (to sin), but rather to **שָׂאֵת** (piel of **אָשָׁת**, to clean or to purify), and because the blood of **תִּשְׂאֵת** is not to applied to human, but to sancta which has to be purified from uncleanness (Lev 16:16). But the ritual of **כִּפּוּר**, which means the goal of **תִּשְׂאֵת**, is not limited to purification but extends to expiation and even to holiness. Thus, So, we may translate **תִּשְׂאֵת** as ‘sanctification offering.’

The second term is **עֹשֶׂת** (Lev 5:15, 16, 18, 19, etc). **עֹשֶׂת** is usually translated as ‘guilt offering.’ If **עֹשֶׂת** is translated as ‘guilt offering’, we cannot distinguish **עֹשֶׂת** from **תִּשְׂאֵת**. There ar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עֹשֶׂת** from those of **תִּשְׂאֵת**.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sin for **עֹשֶׂת** is **מַעַל** which means unfaithfulness to God. And **מַעַל** refers to two kinds of sins – The first one is about the misuse of holy things and the other is about making false oaths by God’s name in order to acquire neighbors’ properties. These two sins are connected to the misuse of the properties of God and other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at the sinner has to add a fifth part to the original property to the priests or to the original owner. That is why we may translate **עֹשֶׂת** as ‘reparation offering’ even if the purpose of **עֹשֶׂת** is similar to **תִּשְׂאֵת**.

The third terms are **תְּרוּמָה** and **תְּנוּפָה** (Lev 7:14, 30, etc). **תְּרוּמָה** is usually

translated as ‘heave offering.’ But תְּרוּמָה is not always related to the cultic context. In the non-cultic context, תְּרוּמָה is used as ‘gift’, ‘tax’, ‘contribution’, or ‘offering’ (Exod 25:2; 30:13; 35:5; Num 5:9; 20:26, etc). Even in the cultic context, תְּרוּמָה is like an offering without any cultic action like lifting something (Exod 29:27; Lev 7:14, 28-34, etc). Rather it is to offer a gift to Yahweh (הַיהוָה). Accordingly, תְּרוּמָה can be translated as ‘offering’, or ‘gift.’ And תְּנוּפָה is traditionally translated as ‘wave offering.’ But some recent English versions like NRSV and NJPS translated it as ‘elevation offering’ because הִנִּיף (hiphil of נוף) may mean a cultic action like elevating the offering before Yahweh (לִפְנֵי יְהוָה), rather than waving the offering (Exod 20:25; Isa 10:15; 13:2; 19:16, etc). We may therefore translate תְּנוּפָה into ‘heave offering’, or ‘elevation offering.’